

여수 돌산에 '명량2' 세트장 들어선다

영화제작사 55억 투입 조성...후속작 2편·드라마 1편 제작 시, 부지 6만㎡ 3년간 6억에 임대...새로운 관광명소 기대

국내 대표 해양휴양관광도시 여수시에 대규모 영화 세트장이 들어선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한국영화 역대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한 '명량' 후속작 제작을 위한 세트장이 여수에 건립된다. 지난 2014년 1700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하며 한국영화를 새로 쓴 명량의 후속작 2편과 드라마 1편이 여수에서 차례로 제작되는 것이다. 영화제작사인 빅스톤픽처스는 바다를 끼고 있는 여수 진모지구 6만㎡ 부지에 55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영화 세트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영화제작사 측이 5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전남을 대표하는 전통 사극 세트장을 추진하는 만큼 여수의 새로

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돌산을 진모지구 영화 세트장 예정 부지를 영화사 측에 3년간 임대하기로 했다. 1년 임대료는 2억 원이다. 여수시는 행정재산 사용 허가를 거친 뒤 영화사에서 사용 신청서를 받아 이달부터 부지에 쌓인 토사 정리에 나서는 등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영화제작사 측은 조선 수군의 본거지였던 여수 진남관과 이순신 처소 등을 실제와 같이 재현한 뒤 오는 4월부터 촬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작사 측은 3년 동안 해당 부지 임대료로 6억 원을 내기로 했고, 여수시는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따라 최대 8억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영화 세트장은 3년 뒤 철거해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활용 정도를 따져 여수시에 무상 기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지를 영화사에 무상 임대하는 방안은 부정적이었던 여수시의회도 최근 유상 임대 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지난해부터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돌산 진모지구에 영화세트장 건립을 추진했다. 영화사 측은 세트장 건립비 55억 원을 부담하고 촬영이 끝나면 여수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수시는 영화 촬영 세트장 기반 정비 사업으로 18억 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의 애물단지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시의회는 영화사에 세트장 부지를 3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시가 제시한 상하수도 시설비 3억 원을 통과시켰지만,

제작사 측은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투자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였다. 여수시 관계자는 "3년간 임대하고 관광 활성화 등 좋은 시설이라고 판단되면 무상기부를 받아 활용할 계획이고 부지(진모지구) 토사 문제만 정리되면 세트장 건립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이번 대규모 영화세트장 건립으로 명량 후속작 촬영에 하루 참여인원 300~400여 명에, 1년 기준 약 45억원 상당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대규모 영화세트장 건립으로 이순신 장군과 전라좌수영 본영이었던 여수가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33 of South Korea's most beautiful temples

Chin Woo Lee, CNN - Published 20th January 2020



(CNN) — There are some 900 traditional Buddhist temples in South Korea — and around 20,000 in total. A visit to any of these local places of worship — many of them centuries old — can be a humbling, calming or uplifting exper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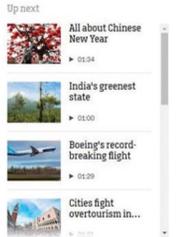
Many of them can be found nestled in the mountains throughout the country, usually in locations believed to have the best pung-su (feng shui) of the area.

But despite the endlessly beautiful and numerous temples, even the most serious pilgrim need not visit all 900. The 33 temples below — 33 to match Buddha's 33 steps to enlightenment — are simply breathtaking.

Hyangilam (향일암)



CNN 여행색선에 실린 '향일암'.



CNN에 소개된 여수 향일암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선정

선암사·송광사·화엄사도

기사에서 향일암이 소개됐다.

여수시는 CNN이 '2020년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에 여수 향일암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자 CNN 여행색선에 역사적 의미가 있는 한국 900개의 사찰 중 미국 방문객들을 위한 한국의 아름다운 사찰을 소개하는

이 기사에는 향일암은 2009년 몇몇 건물이 소실되었으나 남해안 절경 중 금오산과 더불어 한국의 절경으로 꼽히며, 향일암 일출제에 대한 내용도 간략히 소개됐다. 한편, 이날 기사에는 전남 명승지인 순천 선암사와 송광사, 구례 화엄사도 함께 실렸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노후경유차 1000대 여수시 조기폐차 지원

3월 3~25일 접수

여수시는 올해 폐차보조금 16억8000만 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1000대를 조기폐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건설기계 3종도 포함된다.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차량이 등록돼 있고, 6개월 이상 보유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 차량의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도 없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격으로 산정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210만 원,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9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3.5t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 3일부터 25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기후생태과에 등기우편으로 구비서류를 보내면 된다.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GS칼텍스는 여수 농어촌지역 아이들에게 문화생활과 외식 기회를 제공하는 '힐링데이'를 시작했다. 이 행사는 2주에 1회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초청해 진행한다. <GS칼텍스 제공>

GS칼텍스, 농어촌 아이 50명 초청 '힐링 선물'

지역 대표 기업인 GS칼텍스가 여수 농어촌지역 아이들을 위한 사랑나눔에 본격 나섰다. 4일 GS칼텍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여수시 돌산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GS칼텍스 힐링데이(Healing Day)'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50여명의 아이들을 초청해 전문마술사의 마술공연을 관람하고 중식 요리사가 현장에서 정성껏 조리한 짜장면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박성미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허

정란 여수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GS칼텍스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배식과 봉사 활동에 나서 의미를 더했다. 'GS칼텍스 힐링데이'를 통해 지역 사랑나눔을 펼치고 있는 GS칼텍스는 우선 돌산읍·소라면·율촌면·화양면 등 8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2주 1회 소규모 공연과 저녁식사를 제공한다. 향후 여수시 전체 지역아동센터에 'GS칼텍스 힐링데이' 프로그램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형국 GS칼텍스 생산본부장(사장)은

"도심 시내권에 비해 문화 생활과 외식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지역 아동들에게 작지만 특별한 즐거움과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GS칼텍스 힐링데이'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기업으로서 지역민과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다양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S칼텍스는 2010년부터 여수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공동으로 지역 아동들의 건전한 꿈과 비전 함양을 위한 다양한 전문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총 4500여명의 지역 아동들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 낭만포차 이전 온라인 설문조사

시민 만족도 높지만 비싼 가격 불만

여수시 대표 관광상품 '낭만포차'의 이전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여수 해양공원에서 거북선대교 아래로 이전한 낭만포차의 만족도 조사 결과, 이전 만족도는 높지만 가격은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낭만포차 이전 운영에 대한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시청 홈페이지 시민소통광장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11개 항목이며 총 826명이 참여했다. '낭만포차를 해양공원에서 거북선대교 아래로 이전한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361명(44%)이 '매우 적절', 276명(33%)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전 사유는 415명(62%)이 교통, 소음 등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226명(34%)이

해양공원 이용 공간 확보를 선택했다. 하지만 낭만포차 음식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의견이 133명(16%)이었으며 음식 맛에 대해서도 '매우 미흡'이 49명(6%)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변 잡상인 단속, 주차장 지도, 친절과 철저한 위생 관리 등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교통, 소음, 쓰레기 문제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해양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낭만포차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지난해 10월 이전을 마무리했다. 낭만포차 이전은 2019년 여수를 빛낸 시정 10대 성과 온라인 시민 투표에서 1위에 선정됐다. 김동호 여수시 도시재생과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수렴해 낭만포차 운영과 지도단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